

#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여야 온도차

### 秋 "얼음장의 시대 끝나"... 洪 "새로울 것 없어" · 유승민 "핵폐기 · 한미동맹 · 제재 압박"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초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완전한 핵폐기와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도차를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스스로도 비핵화가 살길이고 대화가 살길이라고 깨달았다"며 "이제 보수야당이 좋아하는 얼음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읽고 북미대화의 길로 갔다"며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를 추켜세웠다.

반면 "보수야당은 옛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라고 비판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핵폐기 지 북핵동결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이 아니다"며 "북미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대화의 주제는 북핵폐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평화가 지속돼본들 우리 5000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된다"며 "북핵폐기가 아닌 북핵동결을 인정하지는 식의 접근은 국민들에게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협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오늘 워싱턴 발표문을 보면



백악관 면담 결과 브리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나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2005년도에 김정일이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적이 있다. 북한은 언제나 궁지에 몰릴 때 그런 식으로 쇼를 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남북 간 문제인 동시에 미 북 간 문제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또는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만나서 얘기까지 했음에도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진전이 없다면 상황은 비관적인 쪽으로 견줄 수 없이 흘러갈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공동대표는 "정부가 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 제재 압박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회담에 임해줄지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렵던 북미대화 입구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모처럼 맞은 이 대화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지속적인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남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 6·13지방선거 도내 출마자들... 민주당 쏠림 현상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전북 지역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차 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총 101명이 접수했다.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75명 등이다. 이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신청자들에게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예비후보 접수에서도 201명(광역의원 44명, 기초단체장 42명, 기초의원 115명)이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검증위원회는 188명에 대해 적격자로 결정했고, 1명은 부적격자로, 2명은 정밀심사로 분류했다.

부적격자는 폭력 전과가 있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 하태경 "터치만 있었다는 한국당, 저급·해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터치만 있었지 성폭력은 없었다는 한국당의 발언은 정말 저급하고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현정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강간 정도만 성폭력이지 돼지발정제 강간미수 사건 정도는 성폭력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터치는 성폭력이 아니라는 한국당의 인식은 무개념이자 아직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발언을 한 박순자 의원은 사과하고, 한국당은 그를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성폭력대책특위 1차 회의에서 당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에도 정도가 있다. 우리 한국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공감한다"며 "그래도 우리 보수 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 그리고 같은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며 "성폭력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를 밤을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고 이런, 정말 딸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 세상에서 딸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을 듣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 당에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

## 與, 한국당 배현진·길환영 영입 '엄기영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한 데 대해 "유명세 하나 믿고 강원도지사예 출마했다 나섰던 엄기영 영커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회고일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들이 유명세만큼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길 전 사장, 배 전 아나운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권업유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물"이라며 "한국당이 이들을 영입한 것은 지지율이 낮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인 공천장 남용 사례"라고 했다.

이어 "(둘은) 세월호에 대한 왜곡보도를 지휘하거나 왜곡보도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며 "배 전 아나운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보도 당시에도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엉뚱한 보도도 실소를 자아냈다"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언론탄압을 받은 상징적 인물로 이들을 칭송하는 일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인물을 공천하고, 보궐선거 요인을 유발시킨 지역에 언론적폐로 지목된 두 인물을 인제라며 공천하는 것은 자성 없는 정당의 모습을 고백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뉴스

## 유성엽 위원장, 게임결제한도 완화 '강한 우려'

### PC온라인게임 결제제도 완화·폐지 의견에 "자율규제 기반 없어 게임중독 등 부작용 커"

성인 월 규제(50만원)의 존폐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이 문체부의 PC온라인 게임결제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동안 업계는 PC온라인게임 결제제도를 법적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이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 협동게임제도개선협회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2월까지 관련내용을 논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는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제도를

월50만 원으로 제한해 놓은 현행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협의회와 정부는 PC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이지만,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게임 결제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들 동안 결제한 금액만 2,000만 원

이 넘어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이른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게임에 수천만 원을 결정한 또 다른 이용자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인 확률형아이템에 4,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결제한 미성년자도 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제도 제한을 없앨 경우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양용모 전주병 지역위원장**  
6월 지방선거 불출마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병 지역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용모 전주병 지역위원장은 9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만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고, 공정한 경선관리와 소속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정책중심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